

전국 명성 '완도 김' '대천 김'에 밀렸다

우체국쇼핑 판매율 대천의 10%도 못미쳐

'김의 대명사'인 완도 김이 우체국 쇼핑에서 판매 1위 자리를 충남 '대천 김'에 내주고 밀려났다.

전남체신청이 최근 집계한 '우체국 쇼핑(mall.epost.go.kr) 완도 김 판매 현황'에 따르면 완도 김은 올해 11월 현재 18개 업체에서 마른 김과 조미 김 등 7만8255장을 팔아 11억9천221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대천 김은 11개 업체에서 120만2천528장, 174억1천761만원어치가 팔렸다. 완도 김의 판매액은 대천 김의 10분의 1도 안되는 셈이다.

2002~2005년도에 비교하면 완도 김 판매액은 ▲2002년 11억1천68만원(대천 김 71억1천860만원) ▲2003년 9억2천791만원(103억2천677만원) ▲2004년 10억8천334만원(158억4천639만원) ▲2005년 11억2천149만원(125억6천688만원) 등으로 대천 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완도 김은 대천 김보다 9년 빠

른 지난 1986년 우체국 쇼핑에 첫 선을 보여 1990년대 말까지 20년 가까이 부동의 판매 1위를 지켜왔으나 지난 5~6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전남·충청체신청은 완도 김 판매 급락의 이유로 "완도 김이 대천 김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입소문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맛'이 최우선 요건인데 완도 김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체신청은 또 완도 김 판매업체의 경우 김 뿐만 아니라 멸치·다시마 등을 취급하느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계화 시설과 가공 능력도 대천업체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체신청은 내년 3월 우체국 쇼핑에 공급되는 완도 김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실시하고 주부와 식품업계 종사자·김 판매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모아 맛을 평가한 뒤 완도 김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28일 광주·전남에 눈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영하로 뚝 떨어진 이날 오후 두툽한 외투로 무장한 시민들이 광주 금남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출근길 빙판 조심"

광주 영하 5도...눈 5cm 더 내려

28일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9일 새벽까지 광주지역에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관련기사 7면>

또 29일 새벽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도 몰아칠 것으로 보이며, 출근길 큰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구례와 곡성지역은 영하 8도, 순천과 장성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해남·완도·무안·영광·목포·신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남해서부 모든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추위는 30일부터 서서히 풀려 평년 기온(영하 2도~영상 6.8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음달 1일께 다시 영상권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에는 28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 이날 오후 4시 현재 9.4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밖에 담양 5cm, 화순 4cm의 눈이 내렸다. /이승배기자 lsb54@

GT·DY '국민 신당' 합의

<김근태> <정동영>

새 판짜기 급류...노대통령과 사실상 결별 선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28일 조찬 회동을 갖고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합의, 여당발 새 판짜기가 급류를 타고 있다.

특히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은 신당의 성격을 '원칙있는 국민의 신당'이라며 규정했지만 "어느 누구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자율적, 독립적으로 국민의 품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오전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 "국민은 지금 우리당에 절망하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지난 과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에 기초,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와 질서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원칙있는 국민의 신당'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당헌,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 평화개혁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통합을 결의함과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양심있는 인사들과 함께 준비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원칙있는 국민의 신당"은 누구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자율적, 독립적으로 국민의 품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남아있는 참여 정부 1년2개월의 임기를 소중히 생각하며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운영을 성실히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여 극단적 대립은 피했다.

전날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 '대통합'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여당의 대권주자이자 양대 계파의 수장인 두 사람이 사실상 통합신당 창당에 공개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신당

추진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당과 사수파가 광범한 대립각을 세웠던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는 사실상 신당과의 '판정승'으로 귀결되면서 범여권 통합논의는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빠르게 자리잡는 분위기이다.

청와대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다 먼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힐 사안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여권발 새 판짜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서남권개발을 전담하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다. 왼쪽부터 서삼석 무안군수,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정종득 목포시장, 성경룡 균형발전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한명숙 국무총리,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진 총리비서실장, 박우량 신안군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서남권개발 추진단 출범

어제 정부청사에서 현판식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추진 전담기 추진단'이 28일 정부청사 301호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단 발족으로 전남 서남권개발을 위한 정부 추진기구가 구성됐으며 이에 따라 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서남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박종구 추진단

장(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정종득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100년을 내다보고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훌륭한 발전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추진단'은 단장(국무조정실 정책차장)과 부단장, 기획총괄·사업추진 등 2국(局) 체제로 구성되며,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25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

美, 무역구제 개선 거부

한미 FTA 난항 예상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우리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자국 의회에 통보, 향후 FTA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27일 오전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우리측에도 통보했다

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 제안이 미국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연합뉴스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쿨

최수호 김동원